

일본 현대소설에 보이는 니트 표상*

- 이토야마 아키코(絲山秋子)의 『니트』를 중심으로 -

이정화**
tilyj11@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이토야마 아키코가 니트를 바라보는
방식과 니트 표상 |
| 2. 일본사회에서의 니트 담론 | 3.3 니트와 노동 |
| 3. 이토야마 아키코의 소설집 『니트』 | 4. 결론 |
| 3.1 『니트』에서 묘사되는 대상들 | |

主題語: 니트(Neet), 이토야마 아키코(Itoyama Akiko), 청년 담론(youth discourse), 노동윤리(labor ethics), 니트 비판(criticism of NEETs)

1. 들어가며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와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곧이어 청년고용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본식 경영의 특징으로 이야기되었던 종신고용제도는 더 이상 바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 고용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¹⁾ 이로 인해 ‘취업빙하기’²⁾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

* 이 연구성과는 2017년도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지원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일본에서는 1985년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어 1986년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의 파견근로는 13개월, 파견기간은 1년 또는 9개월(갱신 가능)로 제한되었으나,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일본은 파견법 제정 뒤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하다가 99년에 이르러 파견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했다. ([경제와 세상] 파견법 대수술, 일본이 타산 지석이다』『경향신문』2010년 3월 25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251813495&code=990000#csidx43aecee61a1ddd98e9a3d606118b9a3)

2) 취업빙하기(就職氷河期)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취업이 곤란해진 시기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리크루트사의 취직잡지 『취직저널(就職ジャーナル)』이 1992년 11월호에서 제창하면서 만들어진 조어이다.

로 청년들은 취업난에 내몰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거나 비정규직 취업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었고, 어렵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들을 겪게 되었다.³⁾ 한편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대상과는 다르게,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한 젊은이들도 나타났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니트(ニート, 영어로는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가 사용되면서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대상들이 호명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정의에 의하면 ‘니트’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연령이 15세~34세이며 학교를 졸업한 미혼자이면서 가사노동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 자”이다.⁴⁾ 원래 이 용어는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1997년 보수당에서 정권이 교체된 노동당 블레어정권 시기에 등장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장기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청년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이 점차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니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⁵⁾ 그것이 2003년에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The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를 통해 소개되어 영국처럼 일본에도 니트 상태에 처한 청년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문제화되었고, 니트라는 용어는 일종의 붐을 일으킬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니트가 늘어나는 현상을 사회구조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심리문제로 귀결시키는 사회학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대중들의 인식 속에 니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니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토야마 아키코(糸山秋子)가 단편 소설집 『니트(ニート)』(角川書店, 2005)를 출판하여 주목을 모았다. 본 소설집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발표한 단편들을 엮은 것으로, 총 다섯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토야마는 이 단편소설들에서 ‘니트’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대상들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2017년 8월 현재, 일본에서는 노동력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낮아졌고, 비정규직처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가는 중에 있다. 하지만 니트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니트 담론이 활발하

3) 小谷 敏 외(2010)『「若者の現在」-労働』日本図書センター, pp.9-10

4) 『平成17年版 労働経済の分析』厚生労働省(2005), p.154

5) 박민아(2012)「일본형 니트에 대한 일고찰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대학원, pp.1-2

게 제기되었을 당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은,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되었음에도 계속 니트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⁶⁾

니트 담론이 시의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2005년 발표된 이토야마 아키코의 소설집 『니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소설집 『니트』의 선행연구로는 누마타 마리(沼田真理)의 논문 「이토야마 아키코 『니트』론(糸山秋子『ニート』論)」이 유일한데, 이 논문에서 누마타는 등장인물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소설에서 보이는 니트의 속성에 대해 밝히면서 ‘나’라는 화자를 통해 대상화 되는 ‘니트’에 대해 고찰하였다. 하지만 작가가 그려내는 니트가 현실 사회에서 대상화되는 니트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나, 니트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밖에 『니트』가 잠깐 언급된 글이 있는데, 잡지 『유리이카(ユリイカ)』의 니트 특집에 실린 「‘니트’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ニート」など存在しない)」⁷⁾에서는 이토야마의 단편소설집 『니트』가 주목을 모은 이유와 관찰자적 시점에서 ‘나’가 ‘당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소설보다도 사회현상으로서의 ‘니트’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토야마 아키코의 단편집 『니트』에서 작가가 니트를 어떻게 표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회의 니트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일본 사회에서의 니트 담론

서론에서 전술하였듯이 니트라는 용어가 영국에서 젊은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이들을 사회로 다시 포섭하려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이 니트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젊은이들이 비난받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 원인이나 니트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모두 무시된 채 몽땅그려져 니트로 불리게 되었다.

6) 2017년 내각부에서 발표한 『어린이·청년백서(子供・若者白書)』에 담긴 니트 숫자의 추이 변화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1881478.html>)

7) 齋藤環(2006) 「「ニート」など存在しない」 『ユリイカ』 Vol.2, p.81

이처럼 니트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고 사용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에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를 통해 니트라는 용어가 일본에 소개된 이후 경제학자 젠다 유지(玄田有史)와 프리라이터 마가누마 미에(曲沼美恵)가 쓴 책 『니트-프리터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ニート-フリーターでも失業者でもなく)』(幻冬舎文庫, 2004)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니트가 급증하는 원인으로서 노동시장문제, 교육문제, 가정문제 세 가지를 제시하여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니트의 특징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서툴다’는 서술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을 강조하였고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립하지 않는 청년들 개인의 심리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이어 미우라 아쓰시(三浦展)가 『하류사회-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下流社会 新たな階層集團の出現)』(光文社, 2005)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여기서 저자는 청년들의 ‘의욕의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하류화(下流化)와 결부시켜 니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혼다 유키(本田由紀), 고토 가즈토모(後藤和智) 등에 의해 출간된 『‘니트’라고 부르지마!(ニートって言うな!)』(光文社, 2006)는 니트를 대상으로 구직희망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일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어냈으며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확대된 니트 비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미 니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데다, 우치다 다츠루(内田樹)가 출간한 『하류지향(下流志向)』(講談社, 2007)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곧 ‘하류 지향(下流志向)’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청년 니트’ 논의는 점차 ‘니트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니트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그 대상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은 심화되었다.

3. 이토야마 아키코의 단편 소설집 『니트』

3.1 『니트』에서 묘사되는 대상들

이처럼 니트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니트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논의가 형성되어가는 가운데 2005년 이토야마 아키코는 단편소설집 『니트』를 발표했다. 이토야마는 특히 책 제목을 아예 ‘니트’로 정해 사회에서 논의되는 니트론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토야마: 실제로 무직인 친구와 이야기했을 때, 저는 TV나 신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몰랐기 때문에 “니트가 뭐야?”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멸칭이야”라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것이 제목으로 「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어요.

絲山: 實際に無職の友達と話をしていたときに、私はTVも新聞もろくに見てなくて知らなかったものですから「ニートって何?」って訊いたんです。そうしたら一言「蔑称だよ」と言われて、ああなるほど、と思ったんです。それがタイトルとして「ニート」という言葉を使ってやろうという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⁸⁾

일본 사회에서 니트의 이미지는 멸시당해도 괜찮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 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니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난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토야마는 니트로 호명되는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되었다.

이토야마 아키코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업에 입사해 2001년까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후 2003년에 『잇츠 온리 토크(イツ・オンリー・トーク)』로 제 96회 문학계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작가이다. 2004년에는 『막다른 골목에 사는 남자(袋小路の男)』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상을, 이듬해 2005년에는 『바다에서 기다리다(沖で待つ)』로 제 134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지녔다. 그가 쓴 소설들은 주로 사회에서 받은 상처와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갈등을 인간관계 속에서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주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설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병을 얻어 일을 쉬게 됐을 때 한가해서 글을 쓰게 됐다”⁹⁾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작품 경향과 소설집 『니트』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설집 『니트』에는 총 다섯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작인 「니트(ニート)」를 시작으로 「벨 에포크(ベル・エポック)」, 「2+1」, 「겹쟁이(へたれ)」, 「사랑따위 필요없어(愛なんかいらねー)」순으로 담겨 있는 본 소설집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발표한 단편들을 엮은 것인데, 각각의 작품에는 서로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며 그들이 놓인 환경이나 직업 역시 각기 다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니트」와 「2+1」는 연작으로, 화자 ‘나’는 글을 쓰는 일을 하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다. 그에 반해 니트로 등장하는 ‘당신’은 20대 중반의 나이로,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때 회사를 그만 두고 이후 니트가 되었다. 「벨 에포크」에서도 여성화자가 등장하는데 ‘나=노리(典)’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8) 絲山秋子・星野智幸(2006)「ニートが作家になるとき」『ユリイカ』Vol.38 No.2, p.51

9) 송보경(2007)「이슈&피플-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이토야마 아키코 내한 강연회」『출판저널』Vol.377

미치카(みちか)는 보육원 교사로 일한다. 미치카는 약혼자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얼마 후에 도쿄에서 지냈던 집과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화자가 짐정리를 도와주러 오면서 미치카와 나누는 대화가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나(내)’가 짐 정리를 도와주고 나오면서 당장 필요한 생필품만 따로 정리한 박스를 발견하게 되고, 미치카가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기서 화자인 ‘나’ 그리고 미치카 두 사람 모두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니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 뿐 아니라 미치카와 같이 세상과 단절되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니트의 한 부류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작가의 니트에 대한 의식은 「겹쟁이」에서도 드러난다. 화자인 ‘나’는 도쿄 역내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인물이다. ‘나’는 별거중인 아내가 있지만 마츠오카(松岡)라는 여성과 장거리 연애중이고 선달그믐밤(大晦日)에 그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기차에 오른다. ‘나’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관광버스기사로 바쁘셨던 탓에 어머니의 사촌 쇼코씨(笙子)에게 맡겨 길러졌다. 기차가 도쿄를 떠나 오사카로 향하던 도중 고향인 나고야 역이 가까워지자 ‘나’는 쇼코씨를 떠올리게 되고 자신을 기다리는 마츠오카와 만나기 위해 계속 갈지 아니면 기차에서 내릴지 고민하다가 기차에서 내리게 된다. 여기서 화자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이, 화자가 마츠오카와 쇼코씨를 번갈아 떠올리는 장면을 통해 묘사되며 클로즈업 된다. 그러한 고민 뒤에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마츠오카를 만나러 가고 싶은 욕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 수록 작품인 「사랑따위 필요없어」는 ‘나리타 히로미(成田ひろみ)’와 ‘이누이(乾)’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나리타는 32살의 여성이며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인물이다. 이누이는 나리타보다 10살 어린 남학생으로, 나리타가 강의하는 대학의 야나세(柳瀬)라는 교수의 지도 학생이었다. 이누이는 주위의 기대 속에 프랑스로 유학을 간 이후 성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을 당했고,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사기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에 나리타와 만나게 된다. 이누이는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 소설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엽기적으로 묘사된다. 특히 이누이의 삶의 방식은 사회의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이누이의 모습은 극단적인 예시이기도 하나 니트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며 표류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이 소설들에서 묘사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니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그들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과정

에 있지 않아 사회로부터 니트라고 불리는 등장인물들도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니트라고 보기 어려운 대상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토야마가 이와 같이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이를 『니트』라는 제목의 소설집에 수록한 것은 작가가 니트라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니트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경제활동에 참가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사회학자인 고스기 레이코(小杉礼子)가 제시한 니트의 4가지 분류¹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니트에 대한 사회학 연구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스기는 니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죄형, 히키코모리형, 정체형, 좌절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니트의 성격적 유형이나 생활양식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이토야마의 소설집 『니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니트의 유형으로 분류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토야마는 사회에서 언급되는 니트와 자신이 관찰한 젊은이 상을 결합하여 소설에서 캐릭터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이토야마 아키코가 니트를 바라보는 방식과 니트 표상

한편 수록된 단편들 중에서도 「니트」와 「2+1」은 일을 하지 않는 ‘니트’가 등장하며, 이를 화자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사회에서 니트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한 것으로서, 「니트」와 「2+1」에서 작가가 니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도드라지게 관찰된다.

「니트」와 「2+1」에 등장하는 ‘나’는 예전에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습작을 하면서 니트와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당신’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생각나 ‘당신’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게 된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러한 도움에 대해 미안해하고 불편해 하지만, 나중에는 고맙게 받아들인다. 화자가 묘사하는 ‘니트’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다음 인용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내가 당신 사이트에 들어간 날, 당신의 전 재산은 삼천 엔이 채 안 되었다. (중략) 당신은 모든 권리의 외부에 있고 건강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일할 마음도 없다. 즉 당신은 니트다. 당신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타인의 원조를 받기에는 면목이 없다고

10) 고스기 레이코(小杉礼子)는 니트를 4가지 타입으로 나누었는데, ① 범죄형(ヤンキー型): 반사회적이며 향락적으로 ‘지금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 ② 히키코모리형(ひきこもり型):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틀어박히는 타입. ③ 정체형(立ちすくみ型): 취직 전에 너무 생각이 많아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타입. ④ 좌절형(つまずき型): 일단은 취직을 하지만 금방 그만두고 자신감을 잃는 타입이 그것이다. (박민아(2012)「일본형 니트에 대한 일고찰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대학원, pp.1-5)

생각한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을 하자면, 당신에게는 니트 쪽이 맞는 것 같다. 어울리지 않는 슈트를 입는 것보다.¹¹⁾

하다못해 꿈이라도 있으면 세상은 당신을 관대하게 봐줬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꿈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상당 부분 용서를 받고 있었다. 세상뿐만이 아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었다. 하지만 꿈 따위를 말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코웃음 치겠지.

당신은 지금 20대 막바지다. 당신은 거의 살아가는 것을 그만뒀버렸다. 그 사이트만 남기고 사회로부터 모습을 감췄다. 나는 당신의 사회복귀 따위 딱히 바라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 대해 어떤 책임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참견할 권리는 없다. 당신도 피차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쓰자면, ‘대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대등’을 무너뜨리려 한다.¹²⁾

‘당신’은 오랜 기간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면목 없어 하면서도 니트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 화자는 이런 ‘당신’의 모습을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묘사한다. 작가는 노동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적하기보다, 니트가 되기로 한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마땅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노동하지 않지만 현실에 만족하는 니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독자로서 하여금 니트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니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트로 존재할 뿐이다. 이에 대해 소설가인 호시노 도모유키(星野智幸)는 “인과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개인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¹³⁾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서술은 니트를 일반 사회로부터 단절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물질적인 원조와 니트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당신’이라는 캐릭터의 수동적인 측면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11) 이토야마 아키코 저, 송희진 역(2006)『니트』지식여행, pp.9-10

12) 위의 책, p.12

13) 「さまざまな人物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僕が実感としていいなと思ったのは、絶対に安易な因果関係が出てこないことです。いわゆるニートの状態から始まるんだけど、こういう過去があったからこうなりましたという安易な来歴は絶対に語られない。常にそのただ中からスタートして、その状態を何とか生き延びていこうとするさまが書かれて、結末も、それで結局こうなりました的なことを決して書かない。」(絲山秋子, 星野智幸「ニートが作家になるとき」『ユリイカ』Vol.38 No.2, p.53)

기부라는 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역시 일종의 욕망이다. 한편으로 돈이라는 건 자유의 서툰 방편이기도 하다. 돈이 없던 시절의 나는 정말 자유롭지 못했다. 음식도, 삼푸도, 화장실 휴지마저도 선택할 자유 따위 없었다. 당신은 분명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아주 조금, 아마 4개월 정도의 작은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반년까지는 안 가겠지. 내게 그걸 상상하는 기쁨이 있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현금입출금기 앞에 선 당신의 뒷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나는 또 눈물이 날 것 같다.¹⁴⁾ (밑줄은 필자에 의함)

화자는 선의로 니트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누마타 마리(沼田真理)가 지적한 것처럼 화자와 ‘당신’ 사이에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실마리가 된다.¹⁵⁾ 게다가 「니트」에서는 돈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하는 주체인 ‘당신’에 대한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움을 받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의 모습만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니트 캐릭터는 다시 한 번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도움을 받는 ‘당신’은 “기대선 안 된다고 생각해.”¹⁶⁾라고 이야기하며 자존심을 세우지만 결국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죄의식을 표현한 것일 뿐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처럼 「니트」에서는 ‘당신’의 수동적인 모습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3.3 니트에 가해지는 사회적 비판과 노동

「니트」에서 ‘당신’이라는 인물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되찾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후속편인 「2+1」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 극대화된다. 화자는 ‘당신’을 집에 데려와 보살피게 되고, 자연스럽게 「2+1」에서는 화자의 생활수단인 글 쓰는 일과 소비에 대한 묘사가 늘어난다. 그 와중에 노동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만약 당신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지만 어째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주부도 존재하고, 극히 간단한 노동이나 관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노동은 국민의 의무’ 같은 말들을 하지만, 어째서 당신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하는 일 역시 일로 하고 있으니가 일인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소설 쓰는 것은 취미라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14) 이토야마 아키코 저, 송희진 역(2006)『니트』지식여행, p.22

15) 沼田真理(2010)「糸山秋子『ニート』論」『国文学：解釈と鑑賞』Vol.75 No.4

16) 이토야마 아키코 저, 송희진 역(2006)『니트』지식여행, p.15

말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생활 수단이 아니다. 노동이란 대체 뭐가 무엇이 올바른지 모르겠다.¹⁷⁾
(밀줄은 필자에 의함)

니트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프리터의 경우 언제 그만둘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일단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트에 비해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 인류의 오랜 역사기간 동안 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육체노동은 시민이 아니라 노예에 이르는 하층민에게 부과된 것이었으며 자유로운 인간이라면 강요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¹⁸⁾ 이러한 고대의 노동 개념에 기독교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노동은 더 의미 있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가치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세 유럽사회에서는 개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자기 일의 양을 조절했다. 하지만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생산을 위해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합리화 과정을 통해 유럽 사회에 자본주가 정착되었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¹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의무로 여겨지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는 비난받을 타당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토야마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작가가 쓴 ‘극히 간단한 노동이나 관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생활수단을 얻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면에서 니트와 다르지 않지만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토야마는 ‘사회가 비판하는 것은 소비력이 있는 비노동자가 아니라, 소비력이 없는 니트’라는 점을 꼬집어 현대인의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2+1」에서도 ‘나’는 ‘당신’의 무노동, 무생산에 대해 지탄하지 않는다. ‘당신’ 역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신주쿠까지 배웅을 나가 특급 아즈사 티켓을 사서 건네자
“안 돼, 돈 줄게.” 라고 당신은 말했다.
“어차피 같은 데서 나온 돈이잖아.”
“그래도 그러면..”

17) 이토야마 아키코 저, 송희진 역(2006)『니트』지식여행, p.68

18)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렐렉 외(역음), 이진모 옮김(2014)『코렐렉의 개념사 사전10 -노동과 노동자』푸른역사, pp.16-17

19) 데이비드 프레인 지음, 장상미 옮김(2017)『일하지 않을 권리』동녘, p.40

“맥주 마시자. 한 잔만 사줘.”²⁰⁾

위의 장면은 ‘나’와의 관계에서 권력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결국 ‘나’를 떠나는 장면이다. 그 와중에 ‘나’에게 받은 돈으로 값을 지불하려는 모습은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보려는 몸부림이며, 소비할 능력에 없는 ‘당신’이 니트에 가해지는 비판을 방어하는 행위이다.

4. 나가며

본고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침체기 때문에 야기된 청년고용문제 속에서 나타난 니트를 이토야마 아키코가 단편소설집 『니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회의 니트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토야마 아키코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니트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사회에서 니트라고 불리는 대상들의 성격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캐릭터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대두되는 비판과 옹호의 입장을 선택하여 니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니트에 대한 비난이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근거해 노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이토야마는 현대 사회에서 니트가 노동윤리에 의해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 그 노동윤리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니트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며 이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때문에 작가는 「니트」와 「2+1」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니트를 그리면서도 관찰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토야마는 개인의 의욕문제로 귀결되는 니트 비판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參考文獻】

박민아(2012)「일본형 니트에 대한 일고찰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대학원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렐렉(역음), 오토 브루너(역음), 베르너 콘체(역음), 이진모 옮김(2014)『코렐렉의
개념사 사전10 -노동과 노동자』푸른역사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2010)『새로운 빈곤』천지인
데이비드 프레인 지음, 장상미 옮김(2017)『일하지 않을 권리』동녘

20) 앞의 책, p.86

- 小谷 敏 외(2010)『「若者の現在」一労働』日本図書センター
玄田有史,曲沼美恵(2004)『ニート：フリーターでもなく失業者でもなく』幻冬舎文庫
沼田真理(2010)「糸山秋子『ニート』論」『国文学：解釈と鑑賞』Vol.75 No.4
斎藤環(2006)「「ニート」など存在しない」『ユリイカ』Vol.2
伊東雅之(2006)「ニートの現状とその対策-我が国と欧米主要国の若年雇用対策」国立国会図書館ISSUE
BRIEF No.536
糸山秋子, 星野智幸(2006)「ニートが作家になるとき」『ユリイカ』Vol.38 No.2
栗原裕一朗(2006)「最後のフリーター小説とニートな「私」」『ユリイカ』Vol.38 No.2
本田由記(2006)『ニートって言うな!』光文社

【신문기사 및 참고사이트】

- 송보경(2007)「이슈&피플-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이토야마 아키코 내한 강연회」『출판저널』Vol.377
하종강(2010)「과거법 대수술, 일본이 타산지석이다」『경향신문』(2010년 3월 25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251813495&code=990000#csidx43ae6e61a1dd
d98e9a3d606118b9a3)
2017년도「어린이·청년백서(구청소년백서)」그래프화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1881478.html>)
厚生労働省(2005)『平成17年版 労働經濟の分析』、p.154
(<http://www.mhlw.go.jp/wp/hakusyo/roudou/05-2/>)

논문투고일 : 2017년 07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8월 07일
2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17일

<要旨>

일본 현대소설에 보이는 니트 표상

- 이토야마 아키코(糸山秋子)의 『니트』를 중심으로 -

이정화

본고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침체 때문에 야기된 청년고용문제 속에서 나타난 니트를 이토야마 아키코가 단편소설집 『니트』에서 어떻게 표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회의 니트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일본 사회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그 후로 장기간 이어진 경제침체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내몰렸다. 그러자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니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니트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니트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규명하려는 사회학 연구들에서는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립하지 않는 청년들 개인의 심리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의 영향으로 니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편 이토야마 아키코는 『니트』라는 제목의 소설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니트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사회에서 니트라고 불리는 대상들의 성격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캐릭터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대두되는 비판과 옹호의 입장을 선택하여 니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니트에 대한 비난이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근거해 노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이토야마는 현대 사회에서 니트가 노동윤리에 의해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 그 노동윤리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니트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며 이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수록작품 「니트」와 「2+1」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니트를 그리면서도 관찰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화자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이토야마는 소설집 『니트』를 통해 개인의 의욕문제로 귀결되어 사회에서 비판받는 니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mage of Neets represented in Contemporary Japanese Novel

- Based on 『NEET(ニート)』 by Akiko Itoyama -

Lee Jung-Hwa

This paper looked into Itoyama Akiko'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NEET』 to see how she is demonstrating NEETs who emerged amid a pending youth employment issue, which was caused by a protracted economic recession and how she views Japan's social criticism of NEETs.

Japanese society saw economic bubble burst in the 1990s. The following long-term economic recession made many young Japanese suffer from unemployment. As a result, many young people gave up getting a job, and the word "NEET" was used to call them. There are many reasons why one becomes a NEET, but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increasing number of NEETs emphasized the mindset of the youth who are not standing on their own feet, rather than raising an issue about the social conditions they are facing.

Meanwhile, in her collection of short stories 『NEET』, Itoyama Akiko is describing the lives of NEETs in many different ways.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is characterizing NEETs by highlighting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are called NEETs by society. However, instead of making any assessment of NEETs by siding with either social criticism or social advocacy, the author expressed her person opinion regarding labor, based on the fact that the criticism of NEETs began as a labor issue.

As a result, Itoyama is making it clear that even though NEETs are being criticized in this society based on labor ethics, there is an irony in such labor ethics. In that vein, Itoyama concludes that being a NEET is about an "individual's choice," which cannot be subject to criticism. The author's attitude is well demonstrated in the listed stories 「NEET」 and 「2+1」, where the narrator describes passive and inactive attitudes of NEETs while staying as an observer. Through her collection of short stories 『NEET』, Itoyama is offering a chance to reconsider the social criticism of NEETs, who are blamed for lacking will.